

“신기술·투자 노하우 알려드려요”... 가짜·사칭 강의 ‘주의보’

유튜브 등 SNS서 가짜강의 판처 투자·다단계 사기수업 비슷하지만 ‘강의 제공’에 범죄로 분류 어려워 “검증된 학원의 강의자 이용하고 그마저도 면밀히 살피고 주의해야”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며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심리를 노려 강의를 판매하고 부당한 대가를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4일 (메트로경제)의 취재 결과 챗GPT 활용부터 유튜브 제작, SNS 팔로워 모으기 등 다양한 유형의 사적 강의가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대에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경우 유튜브나 SNS 인플루언서가 AI시대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간추렸으며 강의를 판매 하지만 실제 값어치를 하지 못하거나 약속한 수준의 1:1 코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듀테크 업계는 “강의자들은 모두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꾸며 말하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유명인 사칭 계정들. /캡처

만약 그렇다면 그에 상당한 이력과 작업물을 보여줄 것”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검증절차가 끝난 학원 등에 소속된 강의자에게 받는 것이지만, 이따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나타나는 강의·노하우 구매 피해 사례는 전통적인 투자·다단계 사기수법과 유사하지만 강의 내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범죄로 분류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의 대응을 더 어렵게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세무회계 업무만을 10년 가량 한 김민수(가명)씨에게 AI는

멀고 어려운 이야기였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건설사가 도산하며 일자리를 잃은 뒤 재취업에 번번히 실패하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기술이 새삼스럽게 보였다. 결국 김씨는 비전공자도 AI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자칭 AI 전문가 A씨에게 200여 만원의 돈을 냈다. 3만명 가량의 유튜브 팔로워를 확보한 A씨는 1:1 강습까지 약속했지만 김씨가 받은 것은 전공자만이 알아 들을 수 있는 수준의 강의 영상과 6개월 뒤로 잡힌 A씨와의 1:1 강습이었다.

김씨는 “주변에서 사기라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해보니 강의 수준은 주관적인 요소고, A씨가 개인 연락을 받아주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모호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예 유명한 답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그맨에서 100억 자산가로 투자 노하우를 쌓은 개그맨 황현희를 사칭한 유튜브 채널과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강의를 하는 것처럼 속인 유튜브 채널도 등장했다. 송은이 등 대중적으로 호감을 쌓은 유명인들도 답페이크 범죄 타깃이 됐다. 개그맨 송은이는 SNS를 통해 “혹시나 피해 보시는 분들 계산까 싶어 알린다. 명백한 불법 광고이기에 신고도 하고 SNS에 조치를 취하는 요청도 했지만 쉽지 않다는 답만 받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인플루언서에게 SNS 인플루언서가 되는 비법을 듣는 강의를 구입한 이영진(가명)씨의 사례는 유명인 답페이크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마저도 아

닌 허구의 범죄였다.

평소 화장품과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이씨는 인플루언서가 되고픈 마음에 20만 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가진 SNS 뷰티 인플루언서 ‘B’의 강의를 구입했다. 30만원을 주고 산 PDF 파일은 글자 코드가 모두 깨져 읽을 수 없었고 이를 문의하자 B는 몇 차례 파일을 재전송해 줬으나 모두 읽을 수 없는 파일이었다. 일주일 후 B의 계정은 사라졌는데, 알고보니 B는 아예 피싱 조직이 만든 가짜 계정이었다. 이씨는 워낙 관련 인플루언서들이 많다 보니 자신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플루언서의 콘셉트가 유학생이다 보니 팔로워에 외국인이 많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 못했다. 사진은 모두 중국 인플루언서들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짜깁기 한 것이었고, 친구처럼 보였던 댓글들조차 가상 계정이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로맨스캠으로도 활용된 계정이라는 이야길 듣고 못 잡겠구나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창업공간 신설

세종시에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창업공간 ‘라이콘타운’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처음 문을 열었다.

중기부는 세종점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해 라이콘타운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4일 세종에서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제2차 ‘소상공인 우문헌담 정책협의회’도 진행했다.

라이콘타운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개방형 종합 창업지원거점은 처음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2번째),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 첫번째) 등이 4일 세종 라이콘타운 1호점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국민은행이 힘을 합쳐 1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대표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민간투자연계형 매칭투자 등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2억원의 보증을 받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오영주 장관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지역소멸, 경쟁력이 부족한 서비스 산업 등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자, 우리 경제의 활력소”라며 “라이콘타운이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라이콘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동네상권까지 활력이 돌도록 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기보, 유동화회사보증 4000억으로 확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신규 도입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유동화회사보증을 전년보다 2배 늘어난 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도 새로 도입한다.

4일 기보에 따르면 ‘유동화회사보증(P-CBO)’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만든 후, 이를 자본시장에 매각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제도다.

올해 유동화회사보증은 미래 기술·산업 주도권 선점과 기술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해 정책적·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인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신성장 미래전략산업’은 ▲첨단제

조(우주항공,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차세대 원자력, 수소·미래에너지) ▲디지털·통신·서비스(네트워크, 보안, 양자기술, 지식서비스) ▲자동화(AI,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레드·그린·화이트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분야 18대 산업으로 구성된다.

기보는 또 올해부터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해 발행규모 중 400억원 가량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으로 발행함으로써 녹색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유동화 상품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1년간 이자비용(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태림포장 ‘제지물류’ 맞손

택배용 골판지 상자 공급 확대

물류업계 1위 기업과 포장재업계 1위 기업이 원활한 택배상자 수급과 효율적 제지물류 운영을 위해 손을 잡았다.

CJ대한통운은 4일 오전 서울시 종로 본사에서 태림포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CJ대한통운은 태림포장의 물류 운영을 담당하고, 태림포장은 CJ대한통운에 택배용 골판지 상자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택배 물량이 증가할수록 양사 모두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윈·윈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은 먼저 물류 생산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태림포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던 물류시스템에 대한 효율화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태림포장 공장에서 사용하는 골판지 원재료 수송 및 공장 내 물류를 수행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이를 통해 제지물류 사업도 본격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태림포장은 CJ대한통운에서 사용하는 택배상자 공급을 확대한다. CJ대한통운과의 협력으로 택배상자와 원자재 출이 증가할 뿐 아니라, 물류시스템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비용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기자

인텔 FPGA 알테라 독립

인텔이 FPGA 사업을 다시 분사한다. 인텔은 알테라를 독립시킨다고 4일 밝혔다.

알테라는 인텔이 2015년 인수한 FPGA 기업이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육성하는 등 ‘IDM 2.0’ 전략을 발표하며 분사를 가시화한 바 있다.

인텔은 FPGA 시장이 재활성화할 기회가 생겼으며, 다양한 솔루션과 AI 기술을 제공하며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최적화된 지적재산(IP)을 생성하는 FPGA AI 스위트와 오픈 비노, AI 추론 기능 통합과 CXL 등을 제시했다. /김재용 기자

벤츠코리아, 봄맞이 차량 무료점검 나서

2021년 4월13일 이전 등록차량 대상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구형 모델을 대상으로 봄철 안전 점검에 나선다. 벤츠는 4일부터 ‘2024 봄맞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2021년 4월 13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검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봄철 관리 및 안전 주행 필수 부품을 중심으로 한다.

벤츠는 ▲공기 정화 필터, 에어 필터 등 계절성 부품으로 구성된 ‘뉴스프링 패키지’를 20% 할인된 가격에,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브레이크액 등으로 구성된 ‘브레이크 패키지’를 2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패키지



가 아닌 개별 부품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이 지난 겨울철 눈, 제설제 등으로 인한 차체 부식 및 손상을 점검하고, 봄철 미세먼지, 황사 등 불순물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김재용 기자 juk@